

안성시립도서관



EM67342

(제1호)

안성주부문학회

# 첫 작품집



때 : 1990. 12. 18 (화) 15시

곳 : 나눔터 카페

문학

10.82  
540

300

안성주부문학회

첫 작품집



## 여성 글모음집 발간즈음



국회의원 이해구

흔히 현대를 대중화시대, 정보화시대라 일컫습니다. 이런 시대적 특징 요소중 대중의 소외화 및 원자화, 주사적 매카니즘에 대한 맹목적 추종 등 무언가 감정이 메말라가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물질문명의 폐단이니 하는 현 사회의 제문제들은 바로 현 대중사회의 역기능에서 비롯되는 감이 있습니다.

추종대상이 없으면서 괜히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그만큼 정서가 왜소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안성에 평소 문학을 사랑하고 바쁜 가사에도 틈틈히 글을 써 오신 여성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글모음집을 내게되심을 매우 기쁘고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최초의 안성가정주부문학회가 할 수 있는 귀모임에서 이번의 글모음집 발간은 여타에 신선한 충격과 안성주부문학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임엔 틀림없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 며느리의 막중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시면서 취미로 혹은 남다른 문학에 대한 소질을 충분히 발휘하시는데 대해 높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안성개발에 제1차적 의미부여와 역점을 두었던 본인은 제2차적으로 청.소년과 더불어 우리 여성문화창달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글모음집을 발간하는 안성주부문학회를 주축으로 안성에서도 여성문학 내지는 여성문화가 꽃피울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오며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안성군수 조성현

첫눈이 청룡산을 하얗게 수놓고 있는 계절에 우리 고장 안성의 주부 문학동호회원 여러분들이 회원지를 발간하게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부여러분께서 가정의 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옛날의 꿈을 버리지 않고 숨은 소질을 개발하시겠다는 의욕에 또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의 사회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여성의 지위와 사회참여는 사회의 발전을 가름하는 척도로 간주되리만치 중요한 위치를 접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예의범절과 부모에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자녀를 위한 헌신적인 보살핌을 하는 주부상만을 중요시 하고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능력의 개발을 통해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는 인색하였습니다.

이번에 안성주부문학회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잠재되어 있는 여성의 문학성을 과시하며, 그간의 살아온 길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성찰의 계기를 삼기위한 회원지를 발간하여 여성의 자긍심을 찾고 다원화된 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여성상을 정립하여 진진한 가정과 사랑 넘치는 사회조성에 기여하시게 되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를 통해 안성여성이 그 활동영역을 넓혀 지역발전과 화합에 크게 기여하여 줄것을 기대하면서 안성주부문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작품집 머리에 부쳐



안성교육청 장학사 유 선

문학이란 우리에게 감동과 쾌락이라는 파문을 안겨다 주는 한편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하도록 이끈다. 즉, 내 진정한 삶의 모습과 꿈은 무엇인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인간과 자연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사회의 흐름속에 과연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삶을 운전하여야 하는가? 등등을 깊이있게 생각하게 하고 삶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하며 지금까지의 생각을 달리하게 하는 체험도 맛보게 한다.

이렇게 알뜰히도 정신적 靑福을 만끽하는 주부들의 모임을, 이곳 예술의 고장 안성에 와서 만나게 됐다.

나도 그러한 靑福의 일각이나마 엿보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문해규 회장님으로부터 넘어온 16명의 작품중, 시가 24편, 수필이 8편, 동화가 1편, 모두 33편이었다.

모두가 생활의 아름다운 눈짓들이 담겨있는 작품들이었다.

흙과 더불어 평생을 농촌생활에 묻고 살겠다는 마음, 인종의 미덕을 지킨 어머니를 촛불에 비유한 작품, 가정의 꽃인 자식들의 크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감에 젖는 수필, 대상을 서정적으로 스케치한 작품, 불우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는 시, 등산이나 쓸쓸한 가을에 훌쩍 떠나보고 싶은 욕망을 쓴 작품, 내외간에 애뜻한 사랑을 그린 수필, 김장하는 날 일어났던 일을 쓴 작품 등 문학적 수준에 안목을 붙이기 보다는 실생활의 청청한 종소리가 내 가슴속을 울려퍼지는 작품들이었다.

아무튼 동분서주하는 나의 일과지만 이러한 작품들을 대할 수 있어 잠시 행복감에 젖어들어 보았다.

모쪼록 앞으로 이러한 정신적 행복을 마음껏 누리보려는 주부들이 많아  
져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甘味를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울러 회장님을 비롯한 전회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냄과 동시에 본회의  
무궁한 발전과 기대를 자못 크게 갖어보는 것이다.



낭송을 위한 글



회 장 문 해 규

첫눈이 내 마음의 풍요를 한껏 더해 주었고 생각보다 열성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전회원님들이 있기에 부끄럽다는 생각보다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이 앞서 빨리빨리 책이 나왔으면 하는 교만(?)이 자칫  
걱정된다.

귀한 옥고를 주신 여러 어른께 더욱이 감사드리고, 이 작은 모임의  
결실이 좋은 디딤돌이 되어서 장마철 징검다리처럼 제 자리에 더욱 세련  
되고 어여빠 형상언어로 탄생되고자 한다.

이제 처음 걷는 아장걸음이 제대로 서서 걷고, 또는 땀 수 있는 날  
의 기쁨이 오기까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주부로서의 어느 한  
걸음도 소홀히 하지않고, 정진하리라 다시 스스로에게 다짐해본다.

우리 모임의 특성이라면 모두 각자의 일을 가진 주부들이며, 20대에서  
50대까지 두루 섞여 있어서 삶의 여울을 여러 단계로 건널 수 있다는  
데 더욱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끝으로 안성주부문학인회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  
며, 가일층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각오이다.

## 전 시 작 품

강 미 화

생활의 기쁨

삼 남 매

흙에 살고파

김 속 경

들 쟁

김 순 자

첫 눈

겨울 바람

약수를 마시며

김 정 란

녹색 어머니회

김 혜 선

아버지와 농촌

문 해 규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삶

장애자를 위한 시

구 혜 순

어머니

절 망

실달 그믐밤

김 순 회

출산과 어머니

김 용 설

어머님께 드리는 글

잃어버린 계절

낙엽 여행

김 정 숙

친정어머님께 드리는 글

모 춘 자

갯가에서

방황하는 새

멍 에

박 청 자

농촌은 마음의 고향

박 회 순

농 부  
개척자  
염 원

오 춘 환

가을에 떠남은  
감나무와 꽃꽂이

이 길 숙

당신을 사랑합니다.

장 영 숙

김장하는 날

최 호 숙

꿈

커피 한 잔  
빈들에 서서

생활의 기쁨



감미화

가끔은 슬픈 얼굴이라도  
진실한 진실을 전할 삶이  
있으니 좋다.

웃으면 웃음으로 받아지고  
눈물은 눈물로 전해질  
진리가 있어 좋다.

마음을 열어 놓으면  
바람도 구름도 태양도  
그 창을 넘어 들어오니 좋아라

내것이 네것으로 전해질  
기쁨마저 누릴 정마저 있으니  
가끔은 슬픈 얼굴이라도  
진실을 전할 삶이 있어  
정말 기뻐라



# 삼남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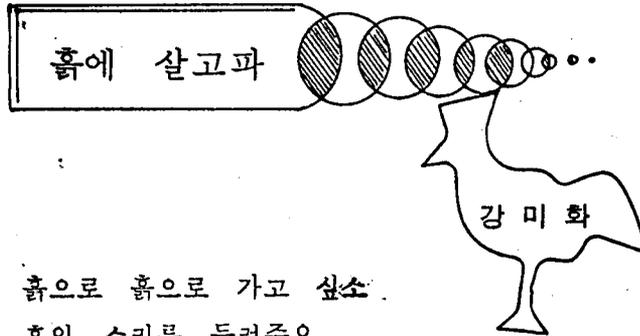


부모님 은공으로 우리 삼남매  
무의 값으로 아무런 노고없이  
빛을 받으니  
어제도 오늘도 평안한 날 없으신  
우리 부모님 노고가  
그들에 묻히어 서 있다.

감았던 눈  
이제야 눈을 떠  
밝은 눈 맑은 마음을 읽히고 닦으니  
두 남동생 단 하나의 혈로  
내 몸이어라

정신과 육신이 시시각각  
흔트러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전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드리는 일이라니  
다음에 챙기고 뇌이면  
두 남동생 단 하나의 혈로  
내 몸이어라





흙으로 흙으로 가고 싶소  
흙의 소리를 들려주소  
그날 들던 소리를  
다시 듣고 싶소

내 귀가 너무 멀리 있어  
들은지 오래니

후여  
가파른 세월에 녹이나  
슬지 않았는지 모르겠구려

만일 그가 초췌해  
지쳐 있거든  
초목과 더불어  
쉬어가라 하시구려



선달 그믐밤

구혜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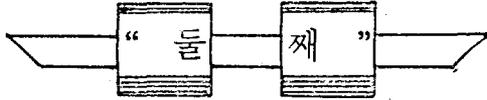
새 양말 들고 오시는 아버지를  
애쓰며 기다리다 잠이 들던 밤

잠결에 들었던  
어머니 아버지의 한숨소리에  
눈을 뜰까말까 망설이던 밤



작은 언니 봉급 봉투에  
온 식구가 매달려 살던 그 시절  
턱없이 옆집애의 새옷이 부러워  
울다 지친 동생 틈에서  
어른도 애도 아닌 채  
난 또 한 살을 먹어야 했다.

땃돌위에 신발도 그냥 그대로  
줄여 입은 내복도 그냥 그대로인 채  
이 밤만 지나면 새날이라는  
어머니 말씀이 이상스러워  
밤새 잠을 설쳐대던 날 아침에  
문밖에는 소복히 눈이 쌓이고  
동생도 나도 어느 새 설빔은 잊고 있었다.



서울 살때 일이다.

5세된 큰애와 3세된 둘째를 데리고 목욕탕을 갔는데 표를 팔던 주인아줌마가 나와 아이들을 번갈아 보면서 “개들 새댁 딸이우? 아니 어쩜 그렇게 생김새가 다를까?” 수신스러운 아줌마 탄성(?)으로 우리 세 모녀는 어리둥절 한채 서로 웃고 말했다. 다르다. 큰애는 검은피부 작은 눈, 오목즈뭇 귀엽다. 둘째는 흰피부 깊고 까만눈 마치 그러논 인형처럼 예쁘다.

큰애는 온순하고 조용하며, 정적인데 비해, 둘째는 욕심이 많고 쾌활해서 동적이다. 하루는 우유배달 아줌마가 껌 2개를 큰애에게 주었는데, 둘째가 얼른 가로 채서 공리(계산)을 한다. 두개를 잡고 한쪽손의 껌을 좀더 빠져나오도록 집고 더 나온쪽의 껌이 크다고 판단한 한참만에야 덜 내보낸쪽 손의 껌을 큰애에게 건넨다. 큰애는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는 껌이 고마와 즐거워 하고, 이 광경을 눈여겨보던 아줌마가 어이없는지 고개를 사뭇 내젓는다.

5세 되던 해

“따르릉 따르릉” 전화 벨이 울리기 무섭게 전화를 받더니 수화기를 말없이 건네 주며 큰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영문을 모른채 수화기를 받아들고 “여보세요 내네 여정이가 유치원에서 코피를 쏟았다고요?” 대충 통화를 끝내고 이유를 물었더니 “왜 엄마가 여정이 엄마야 우리엄마지” 결국 유치원 선생님께 다시 통화를 부탁해서 “여림이 엄마 바꾸어주세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울음을 끝쳤던 이 배쟁이가 지금 4학년이다.

자식은 내리사랑, 손자는 위로 사랑이라고 했던가! 어찌다. 서울에서 시 부모님을 뵈러 내려올 경우 큰애에게만 유독 사랑을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인해 둘째의 눈치를 살피며, 우리 부부는 전전긍긍이다.

아이 들이 울때에도 큰애에게 먼저 달려 가서서 역성을 드셨고, 큰애 옷이 작아져서 둘째에게 입힐라치면, “단을 내어서 입으면 몇년은 더 입을것이라고 하시며, 큰애 옷장속에 넣어두시는등……

시어머님 병환이 위독하셔서 서울직장을 그만두고 안성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다. 시어머님 병환이 웬만해지셔서 읍에다 제과점을 차렸다. 대덕면 시골집에서 애들아빠와 나는 아침에 출근(?)하면 밤 12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생활로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유난히도 욕심이 많고 셈도 많던 둘째가 국민학교에 입학해서 한달 후에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여림이가 글을 전혀 모르는줄 알았어요”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해서요” 처음엔 지진아픔으로 알았다. 학교생활이 즐거울것이라 믿고 기대하던 내게 뒷통수를 세게 내려치는 선생님 말씀으로 멍한 표정이되어 “아니 그럴리가……” “조금만 큰소리로 얘기해도 겁 먹은 표정으로 눈물을 흘려서 난처합니다. 여림인 언니 안 닮았나봐요 여정인 똑똑하다고 소문 났던데……” 아니 이게 웬 날벼락같은 소리인가, 한마디도 입을 떼지 못하고 황급히 집에 오는데 마음은 소리없는 아픔이 되어 답답해지고, 눈물은 왜 그다지 쏟아지는지, 엄마의 이런행동에 놀라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를 흘끔거리는 둘째를 바라본 나는 그제서야 둘째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자책감으로 가슴을 치는 깊은 후회로 둘째의 머리만 쓰다듬었다.

엄마, 아빠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채, 할아버지, 할머니의 편애, 파출부아줌마의 무관심, 그 보다도 남동생이 태어 나므로서, 둘째는 더욱 소외되었고, 외롭게 만든 큰 이유가 되었으리라 부모에 대한 신뢰감은 얼마나 크게 부서졌으며, 저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며칠후에 우리 부부는 제과점을 치우고 아이들을 특히, 둘째를 눈여겨 바라보며, 살고 있다.

며칠전 만나본, 둘째 담임선생님 말씀이 발표도 곧잘하고 전체적으로 우수하단다.

특히 노래를 잘 부르고, 글도 잘쓴다고 하는데 이제서야 타고난 성격을 찾아 제자리 걸음하는 노력이려니 생각하면 씁쓸해지기도 하고 .....

“첫째 ” 첫째를 요구하는 세상이다.

누구나 첫째가 되고 싶어한다. 첫째와 둘째, 꼴찌의 조화로 말미암아 세상은 아름다운게 아닐까?

유난했던 욕심과 셈으로 언니를 이겨보려 했던 둘째가 이제는 언니를 어려워하고 남동생도 지극히 예뻐한다. 둘째는, 둘째라는 체념으로 받아들이며, 상처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상처는 부모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여기던 행동들 때문이란 자책감으로 큰애와 셋째보다도 더 둘째에게 조심스런 눈길을 보낸다.

조심스러운 눈길조차도 큰 차별이 되지 않을런지 걱정이 되면서





겨울바람

김 순 자

키같은 날개를 달고 달려오는가  
밤새 웅웅 내 창안을 들어오려  
두드리는 소리는  
성난 벌이 되어  
내 귀를 어지럽힌다.

밤새 이빨가는 소리에  
선잠을 깨고  
깨어진 꿈조각을 이으려고 애써도  
겨울바람의 시샘으로 잦아붙는다.

목마른 겨울 나뭇가지만  
가만이 내창을 들여다 볼뿐  
바람은 고독의 가시에 찢려  
밤새 떨다  
수돗가 편 물 살얼음으로 앉고

새벽신문을 짓밟으며  
돌아서는 긴 한숨은  
하얀 무서리로 내리는  
겨울아침으로 찾아온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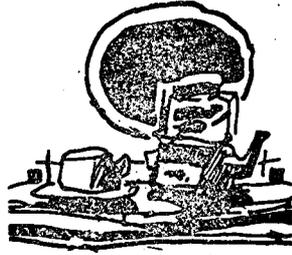
---

약수를 마시며

---

김 순 자

마시네  
오는 세월 떠난 세월  
다 끌어안고 고인  
푸른 소나무 눈빛 어린  
약수를 마시네



굽힌 무릎을 힘껏 세우고  
마른 나뭇가지 바람에 흔들림도 태우려고  
숨가쁘게 태양은 달려오기에  
오늘도 진달래빛 동녘하늘 뉘이네

애가 타도록  
입술이 트이도록  
언제나 같이 있어도  
외로운 나목들의 추억속에도  
약수는 살아있는 생명수

그리하여 한 계절 겨울이 지나면  
긴 겨울잠에서 기지개 펴고  
흰 눈을 떨구고 파란 꿈 잉태하리라  
한 잎 더 피우리라

눈시도록 밝아오는 첫새벽  
마른 자리 차곡차곡 진자리는 닦아서  
저 외진 환구름길 별지난 그림자위에  
새들의 조잘거림 가득 신선한  
내 하루를 약속하리라

## 잃어버린 계절

— 김 용 설 —

머무르고 싶었던 그날그날에  
눈물로 밀려 되돌아보는 시간들  
회미한 그 먼-자리에  
차가운 땅위로 굴러가는 외로운 앞새  
나!

그 위로 아픈 계절을 밟고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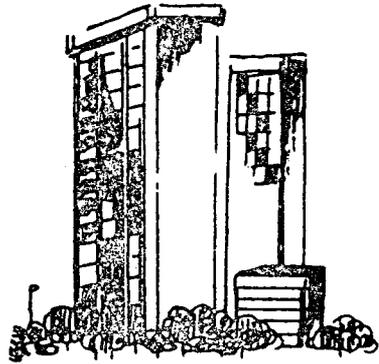
마알간 하늘에 번지는 너와의 속삭임 또한  
말없는 시간속에 묻혀버리고  
나!

또 하나의 슬픔을 밟고간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나는 살고 싶다.  
항상 소리가 없는 곳에  
나는 머무르고 싶다.

계절이 가버린 텅-빈 하늘가  
보이지 않는 곳이기에 한가닥 미소를 지으며  
나!

이렇게 눈물을 마시며 오늘을 산다.



# 낙엽여행

김용설

삭아버린 여름그늘위에  
먼 목소리가 청청히 내리네

푸르고 싱싱한 생목소리가 불타면서  
어둠을 눈앞에 뿌려썰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단풍 물들어  
뿌연 허공으로 날아가네

창유리로 흐르는  
몇줄기 아침 이슬  
모두가 텅 빈 가슴에 차갑네

바람속에 혼자 느끼는 사람아  
아무도 같이 슬피해 주질 않네

안개젖은 흰이마 서늘한 나절  
어둠 닦아내며 가을빛을 태우네



## 어머님께 드리는 글

김 용 설

어머니!

당신은 머언산 홀로히 피어있는 분홍빛 진달래꽃처럼 은은한 향기로움을 지니고 계십니다.

당신은 여름밤 메마른 별빛을 안고 하이얀 달빛에 비치는 초가지붕위의 흰 박꽃처럼 순수하시고 고귀하시기만 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지니고 있는 진한 사랑의 향내와 빛깔을 당신의 가슴속에 곱게 곱게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당신의 가슴속에 맴돌던 너울속의 향내는 이 못난 당신 딸들에게 바쳐져야 했는지요?

당신은 여덟번째이나 되는 아픈 진통을 겪으시며 그 슬한 괴로움도 잊으신채 주어진 삶에 눈물지으며 소리없이 살아오셨습니다.

당신께서 여덟번째 진통을 겪으신 날 당신의 딸은 성실한 시간속에 밤이 슬퍼짐을 느끼며 세월을 먹고 사는 가난한 군상들과 더불어 슬픔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젠 당신의 딸은 어머니 스스로 걸으셨던 가시밭길을 결코 밟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고팠고 추웠던 빛바랜 지난 날들은 오직 잿빛 추억속에 묻어버리고 당신만이 지니고 있는 따사로운 미소만이 가슴속에 간직할 따름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안개 고인 허공에서 젖은 흙웃 하나 걸친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웬지 서글퍼짐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떠나버려 텅 비어진 가슴이 홀로 빈터에 남아계실 어머니를 그리며 성모마리아상 앞에 서 봅니다.

이 못난 딸은 그저 작은 테두리 안에서 남편과 한 아이의 일로 조그마한 일에도 행복을 느끼고 사소한 일에서 가슴아파 하면서 문득문득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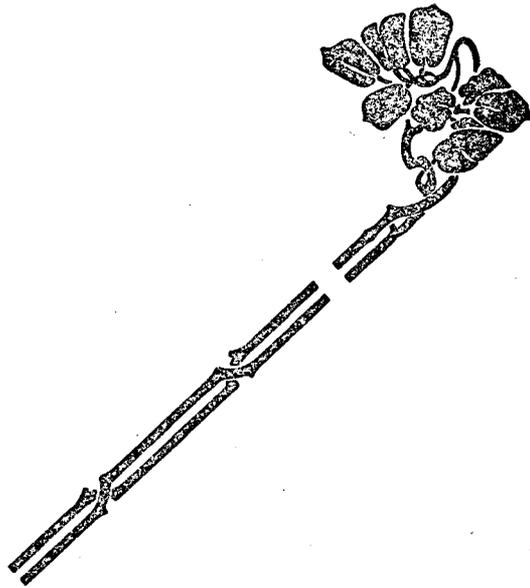
만이 어머니를 향해 서성거릴 뿐입니다.

어머니!

이젠 당신의 딸은 영원한 슬기의 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11월의 차디찬 바람도 어머니의 잔잔한 미소 앞에서는 훈훈해질것  
이라 생각하며 울겨울도 따뜻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딸 드림





## 녹색 어머니회

김정란

낮에 김장 배추를 사러 나갔다가 배추가 너무 싸 남편이랑 농촌사람들 걱정을 하며 준비를 해놓고 저녁을 짓는데 주부문학회 회장님께서 숨이 턱에까지 차서 3층까지 올라오셨다.

회원들 작품발표회가 곧 있으니 내일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한 편씩 준비를 하라는 엄명(?)을 놓고 일층에 식구들과 식사하러 와서 기다리신다며 내려가셨다. 큰 낭패다 워낙 글솜씨가 부족한데 시간까지 촉박하니 / 무엇을 쓴담 다른 회원들께서는 글재주가 좋으시며 평소에 습작들도 많이 하시니까 큰 걱정들 앓고 열심히 하셔서 벌써 제출하신 분들도 많으신가 보다. 이럴줄 알았으면 평소에 책상머리에 자주 앉아 연습을 해두는 건데 ……………, 하며 후회를 하면서 부족한 필을 들어본다.

4년간 활동해온 “녹색 어머니” 일을 하면서 생긴 일과 느낌이 많지만 다 쓸 수는 없고 나름대로 갖은 보람과 각오를 생각해 본다.

87년도 처음 회원은 백성국민학교 1학년 반 대표 어머니 7명과 각면에서 새마을 어머니회 회장을 맡으신 임원 한 명씩 하여 십사명 합해서 이십 일명으로 시작을 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처음 생긴 단체라 교육과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또 각 면에 임원들은 농촌에서 맡으신 일들이 많아 시간을 내어 봉사한다는게 어려움이 컸다. 활동시간이 주부들이 제일 바쁜 아침 7시부터 8시 반 사이라 정말 힘도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처음엔 주부들이 복장을 갖추고 길거리에 나가서 있다는게 여간 속스러운게 아니었다.

거기다 신호등을 무시한 운전자나 행인들에게 질서 캠페인까지 해야 되니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그래도 내년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유치하여 훌륭히 잘 치러내야겠기에 온 나라 국민들이 질서 잘 지키는 문화국민으로 발돋움 하고자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 열기

에 힘입어 우리 안성군 녹색회원들도 모든 어려움을 참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비록 우리 군에서 치루는 행사는 아니드래도 전 세계인의 관심과 부러움이 집중될 큰 행사를 치루는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긍지를 갖고 각자가 열심히 뛰었다.

우리국민들이 각처에서 자기의 맡은 일에 충실하여 그 큰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칠 때 우리국민들은 얼마나 기뻐하였는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귀한 보물을 우리 국민 모두가 나눌 수 있지 않았던가! 우리 군 회원들도 적은 힘이있지만 이 큰 행사에 일익을 담당하였다는 자부심에 모두들 보람을 갖었다.

군에서 경찰서에서 상도 주셨다. 상을 받고 보니 기쁨보다도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가 되어 어깨가 더 무거워짐을 느끼며 새로운 각오가 생겼다.

이제 올림픽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질서 잘 지키는 안성군으로 정착할수 있게 더욱 노력하여야겠다고. 처음 활동때의 그 어색하고 쑥스러움도 물러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안면있는 분들과 마주칠 때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도 나누며 “오늘 하루도 즐겁고 보람된 하루가 되세요.” 하며 지나시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눈인사로 기도할 때 출근 시간 바쁜 걸음이 더욱 활기차 보여 더욱 좋았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신호 대기해 기다리던 아이들이 나의 것발이 내려지면 우루루 물려와 “안녕하세요?” 큰소리로 인사하며 건널 때 “그래 오늘도 질서 잘 지키자”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내가 꼭 선생님이 된것 같은 착각도 들어서 기분이 좋다. 어쩔 땐 피곤하여 늦잠을 잔 날은 허둥대다 오늘은 나가지 말까 하다가 이제 제법 아이들과도 면을 익혀서 친해진 나의 구역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오늘도 횡단보도에서 서있을 나를 찾을지도 몰라 생각하며 서두를 때도 있다. 이게 사명감일까?

그런데 처음과 달리 요즘은 나의 사정으로 열심을 내지못할 때가 많다.

회원들이여! 대신 분발해주세요. 그동안도 잘 해주셨지만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험악해질 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

지 않으면 누가 저들을 지키겠는가? 어제 신문에 국민학생이 “제발 범죄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유서를 쓰고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아예 말문이 막혀버리지 않았는가!

이제 신문 보기가 두렵다. 한창 공부하며 맘껏 꿈을 키워나갈 청소년들을 누가 저렇게 방황하게 만드는가? 우리 어른들과 깊이 반성하며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깨어 자신들을 추수려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른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이리저리 떠밀려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이야말로 우리 어머니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이 아이들을 보호하여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할 때다. 나태하지 말자. 희망을 잃지 말고 서로가 손을 잡고 아이들을 보존하며 자기 자리를 잘 지키자. 그리고 모범을 보이자. 이기심을 버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 아이들에게 “활동하는 어머니상” “봉사하는 어머니상”을 심어주자.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갖자. 나만 잘살고 내 자식만 잘되면 그 이기심이 얼마나 험하고 삭막한 세상으로 바뀌어 우리 2세대들이 사는 세상으로 변할까? 어떻게 그속에서 내 자식만이 온전하게 세파를 헤쳐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어른들이여 참 인간이 되는 교육은 뒤로 하고 물질적인 재산만 물려줄려고 너무 힘들게 살지 맙시다. 그애들에게서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결과만 돌아온다고 생각이 들고 물질적인 유산보다 값진 삶의 자세와 역경을 헤쳐나가는 끈끈한 정신력을 길러줄 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유산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 녹색 캠페인 -

- \* 어른들이여 조급함을 버리고 잠시 여유를 갖자 (난폭운전자)
- \* 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아끼자 (공공시설물)
- \*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자 (자연사랑)
- \* 반갑게 인사하며 밝은 사회 만들자 (이기심 퇴치)

어머님들이여 다같이 녹색회원이 되어 보다 좋은 안성군이 되도록 열심히 뛰어봅시다.

## 친정 어머니께 드리는 글

김 정 속

어머니!

세월은 유수같다더니 검던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린 모습과 이마에 주름살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어머님! 얼굴을 떠올릴 때 베어지는 이 가슴 무어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리오리까? 모든 세상이 다 바뀌고 세월은 흘러가도 우리 어머니만큼은 늙으시지 않으리라는 나의 기대는 사르르 무너져 버리고 붙잡을 수 없는 세월에 저는 한탄할수밖에 없습니다. 멀지않아 칠순을 바라보시는 어머님. 김씨 가문에 육대독자 며느리로 오셨지. 오직 시부모님 공경하시고 수족 못쓰시는 할아버지 대소변 받아내시며 기나긴 시집살이와 너무나 힘들었던 지난 날을 아무런 말씀 한마디 안하시고 밀양박씨의 양반됨을 늘 자부하시고 힘들고 가난한 옛날의 현실을 자식한테 물려주기 싫어서 손가락 마디마디에 군살이 베이도록 일하시고 자식들 남 못지않게 가르치기 위하여 얼마나 힘들어 하시든 그 모습이 눈에 선 합니다.

남들보다 인간 됬됨을 중요시 가르쳐 주시고 형제간에 우애와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늘 강조하시고 모든 면에 침착함을 가르쳐 주신 어머님 말씀 한마디 마디 실천으로 옮기시고 늘 고운 미소와 자태를 보여주실 때 우리 형제들은 모든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르치어 자식들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아들 딸이 모두 다 출가하여 제 나름대로 가정을 꾸려 나갈때쯤 아버님은 병환으로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아버님 장례 치루고 우리 모든 형제 서울로 돌아올때 어머님 혼자서 종가집을 지키시기 위하여 혼자 외로이 남으시며 자식들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시며 치마자락으로 눈물을 닦으시던 어머니의 그 모습이 성숙해져가는 이 딸의 가슴에 베어지도록 남아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형제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서울로 떠나올 때 홀로 남아 계시는 어머니의 걱정에 멀고도 긴 시간을 말 한 마디 없는 우리 형제들 어머니는 아실겁니다.

그러던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저두 자식 커가는 모습을 보고 가르칠 때마다 어머니 얼굴을 떠올릴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농사와 소를 키우고 시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보니 일년에 한 번 찾아 뵈을까 하는 제가 어머니께 크나큰 잘못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신 한 장 제대로 띄우지 못하고 용돈 한 번 드리지 못한 딸이 어머니께 어떻게 효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친정이란 단어를 까맣게 잊고 살때마다 문득문득 어머니 얼굴을 올릴 때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산천초목이 푸르던 한여름 더위는 떠나가버리고 휘몰아치는 추운 겨울의 눈발은 더욱이 온몸을 움츠려지고 따뜻한 옛날의 그리움이 감도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 조금 고달프고 힘들 때면 모든 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짜증내 버리는 저는 어머니과는 비교도 안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참으면서 시부모님 공경하며 내 형제 사랑하고 자식교육 올바르게 가르쳐서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딸이 될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어머니!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제가 힘들 때와 피로울 때 저의 곁에서 늘 같이 함께 지켜봐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이 겨울에 따뜻하게 군불이라도 지피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올 겨울에 꼭 어머니 찾아뵈우고 아버지 산소에도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어머니 건강하시고 부디부디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자식들 걱정하시지 마시고 따뜻한 진지 제때 드시길 바랍니다.

막내딸 정숙 드림

( '90년을 마무리하며 )

## 아버지와 농촌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신능리 110(중앙목장)  
T. 73-4855

김 해 선

언제나 수수한 옷차림으로 흙을 부모처럼 섬기며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자식사랑에 남편사랑 하는 사람은 반푼이니 온푼이니 한다지만, 부모님사랑 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는 예를 일찌기 접하지 못하였기에 나는 이 이야기를 서스럼없이 시작하련다.

아버지의 꽤 유명해진 친구분들이나 친척들이 목청을 돋구어 도시로 나가서 살라고 수 차례 권하였었지만 명예와 부를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치신 아버지. 하지만 난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같은 길을 걷기로 하였다.

농촌을 지키기로 작정한 내 뜻을 아시고는 몇 번이고 내 마음을 돌려 보려고 애쓰시던 그 마음을 내 어찌 해야리지 못했을까? 흠족한 반면에 농촌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달려와 말리고 싶었으리라.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이 우리집에 모여서 간소한 약혼식을 하던 날 아버지께서는 농민신문에 발표된 어느 농촌 모범부녀회원의 이야기를 읽어주시고는 나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셨었다.

이제 회갑을 눈앞에 두신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던 어느 날 내 목소리가 건강하지 못함을 아시고 이내 보내주신 편지에는 “그리운 딸에게. 아직은 넘치는 젊음의 활력이 있으니까 무엇이 두려우랴만은 억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는구나. 건강없이는 시부모님께 효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행복한 가정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건강보다 중요할게 또 있을까?……”

라시며 오히려 젊은 이 딸의 건강을 걱정해 주고 계셨었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께서 반주 한잔에 18번곡인 번지없는 주막을 흥얼거리며 아홉시 뉴스가 끝나기도 전에 깊은 잠이 드셨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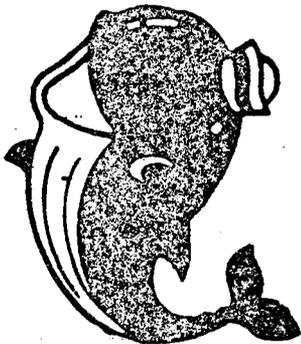
햇살이 비추기가 무섭게 부지런히 가을 곡식들을 멍석에다 이것저것  
헤집어 펼쳐놓았다.

남편과 들어서 도리깨질을 팔이 아프도록 두들겨 거둔 들깨며 호박오가리  
무우말랭이 등 따가운 가을별에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는 저들은 필경  
농부의 건강한 신부노릇을 특특히 해줄 수 있을려는지? 아버지의 마당에  
도 지금쯤은 고구마, 벼, 고추 등이 집을 떠난 자식들의 빈 자리를 조금  
이나마 채워주고 있을 것이다.

지금 나는 누군가? '당신이 사는 곳이 어딘가?' 라고 묻는다면 자랑스  
럽게 '농촌'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당신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냐?' 고 묻는다 해도 떳떳하게 '농업'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같은 직업을 가졌기에 서로 뜻이 통하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  
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여태까지는 내가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받았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안부를 여쭙고 여러모로 배려를 해드려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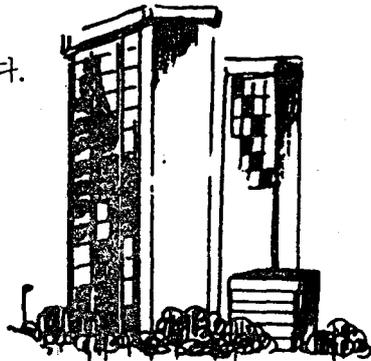


「문허리」 동구밖에  
외딴집 하나가  
해풍에 그을린  
남국의 운치를 닮아가고 있다.

수십리 밖에서  
진흙같은 갯벌위로  
발이랑 쇠스랑질 하며  
물소리 달려오고

「봉선대」 바람 아래  
민물인듯 짠물인듯  
인적드문 갯가에는  
태고적 사람들의 숨소리 달려오고

인적드문 저-편  
질 띄한 갈대숲에서  
해오라기 물새가  
집을 짓고 푸드덕 거린다.



## 방황하는 새

모춘자

내가

한 마리 새가 되어

텅빈 하늘을 맴돌다가

하얀 병동에서

그 창백한

가슴앓이 소년을 보았는데

어느 날

질규하는 듯

어혈을 토해버리고

싸늘히

식어버린 죽엄같은

장엄한 영혼을 향해

우수수

나뭇잎 쏟아지는 소리

회오리 바람소리

솔개바람 소리

그리고 천둥소리와 함께

무서운 태풍이 함성을 지르고 지나가는데

실눈같은

진눈개비는

내 작은 안개꽃이 되어

얼룩진 세상을 한바퀴 돌아보고

또 가난한

시인의 가슴을 불태우던 날

정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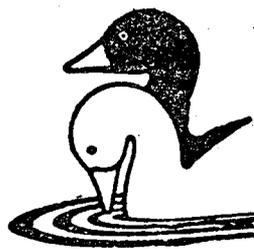
내가 길 나그네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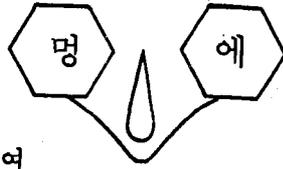
등지 찾는

한 마리 새가 되어

아득히 잃어버린

향수를 찾아 방황하는 것일까.....





신이여  
당신이  
내게 명에 되시면



내 영혼이  
어둠속에서 방황할 때  
알라딘의 등잔처럼  
하늘에  
영롱한 별들이  
금싸라기 되어 쏟아져 내리고

어찌다  
서러운 눈물이 흘러  
강물처럼 범람하여도

천둥소리  
바람소리  
요란하게 합성을 지르고

나를 향해  
저주의 몸짓으로  
엄습해 올지라도  
신이여  
당신이  
내게 명에 되시면  
항상  
나와 동행하는  
길나그네 되시네



##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 문 해 규 —

해맑은 눈  
너희들 바라보느라  
또 다른 연민이 시야를 흐린다.  
수없이 많고많은 사람들중  
왜? 하필이면 너희들이랴!

예쁘고 수줍은듯 하고  
씩씩하고 또한 으젓하고  
다 보아 나무랄 곳 없는데  
참 깔끔하고 사랑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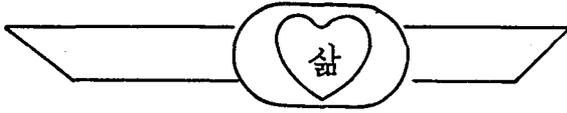
어렵고 힘든 세상  
고사리손으로 혼자 지는 짐  
무겁기도 하다.  
할머님 봉양하라 우는 동생 달래라

어깨에 달린 가난의 훈장  
삶의 무게되어 내리 짓눌리고  
도처에 산재한 불의의 사고들  
우리 함께 나눌 것들이면  
조깅 수 없는 미세함까지  
나누고 또 나누자꾸나

곳곳이 정직히 사노라면  
태초에 타고 난 복 같으다면야  
지금 힘겨운 현실만큼  
몇배되는 축복 돌아오리

자. 옷자 이 순간들이  
비록 순간에 끝날지라도  
우리 무거운 현실의 짐  
봄바람에 잠시  
꿈결로 실어 날려보자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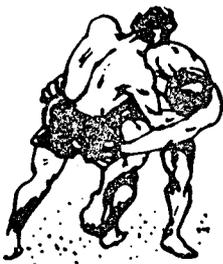
문 해 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남겨질 수 있는 시가 되어지이다.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한 폭의 어여쁜 그림이 되어지이다.

말하는 모든 것 그 자체가  
두고두고 기억될 소설이 되어지이다.

인생이라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랑으로 불리워질 진실이 되어지이다.



## 장애자를 위한 시



문 해 규

우리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 아래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서로 따뜻한 가슴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

보이는 장애와 보이지 않는 장애가  
당신과 나의 차이일뿐 좋습니다.

당신이 뛰는 시간에 나도 뛩니다.  
나는 몸으로 당신은 마음으로 .....

서로가 채워지지 않는 가슴앓이 견디면  
우리는 고귀한 생명 함께입니다.

모두가 모두가 하느님 주신 생명  
단, 외형 내형으로 구분지어진 것뿐

나도 불구요, 당신도 불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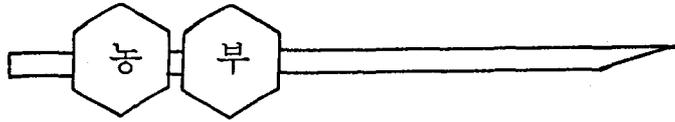
당신은 육체로 보이고 나는 마음으로 .....

누가 누굴보고 웃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뉘어진 모습 합하면 하나인 것어요.

(장애자 올림픽을 보면서)





— 박 회 순 —

통통한 열매를 맺으려고  
꽃이 지는 서글픔을 참아내었지  
황금 들녘에 꿈을 꾸며  
뛰약별을 사랑하는 인내를 배우고  
가을을 노래하기 위해  
우주만물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긴 가뭄은 목 마름을 줄지어 탄식케 했고  
청록의 벌판은  
기약없이 시들어 그 빛을 잃었구나

하늘을 우러러 보아  
구름 한 점 쉬어갈줄 모르더니  
어데서 온 검은 바람인가  
쏟아지는 빗줄기에  
노여움이 가득 찬 하늘의 울음까지  
휘어진 농부의 허리  
영영 펼 수 없게함을  
결들여  
마름을 부축이는 바람이여  
고인 물 썩게 하는 구름이여  
그대들은 알고나 있는지  
흙에서 살고지는 농부의 지심을 .....

# 개 척 자

— 박 회 순 —

그대는 오늘도 쇠스랑을 메고  
 품삯도 안나오는 오지라 외면한  
 자갈 반 모래 반 개울뚝 들레를  
 발걸음으로 평수를 재며  
 미래의 부푼 꿈만으로 즐거운  
 콧노래도 부르며 일하고 있었소

더러는  
 무지한 돌부리에 손톱을 내놓고  
 주인을 모르는 쇠스랑은  
 그대의 발등을 찍기도 했었오  
 내가 그대라면  
 아예 주변머리 없는 행색대로  
 포기의 보따리 싸들고  
 새 터전으로 갔으련만  
 울음섞인 웃음으로 자위하는  
 그대 가슴에 꿈틀거리는 그것은  
 무엇의 구심점일런지요

언제인가는  
 옥답이 되리라는  
 가냘픈 한가닥 희망에  
 젊음과 한가로움마저 바친  
 그대의 의지는  
 눈부시게 존경스럽고  
 아무도 눈길 주지 않은 개내터에  
 밧고랑 하나 둘 늘어가고  
 씨뿌린 그 자리 손길의 정은 싹틔어도  
 오뉴월의 가뭄 별 가려줄 그늘 없어  
 쭈구렁 열매만 그득해  
 둥구멍 하나도 못채운  
 첫 수확의 기쁨과 실망의 교차  
 이 가을 거둔 것 없어  
 가난한 그대 마음 공간  
 긴 겨울 무엇으로 버티어 가겠소만  
 지금까지 그대 의지로 보아  
 명년가을 이 바람이 다시 불때  
 부러운 시선속에 풍요로운 추수  
 평년작은 넉히 거둘것을 난 믿고 있다오  
 난 알고 있다오

(문학회 회장님께 드리는 글)

염 원

박 회 순

몹시도 바람부는 날  
여린 순 가지를 다리고 태어나  
이른 봄 진눈개비에  
고고한 자태 지켜내더니  
찬 이슬 흠뻑 맞으며  
하나의 단잠을 빼앗겨 버리고  
휘몰아치는 유혹을  
몰라라 하더니  
뜨거운 가슴 깊숙한 곳에  
감추어진 붉은 튜올립  
들녘에 날아드는 씨앗 되었네

정지된 밤이 길수록  
새벽의 상쾌함은  
온실의 다듬어진 꽃들이  
알 수 있으리요  
자외선 가득 받아  
진하게 그을은 들꽃  
엷히고 섬히어 이웃되는 날  
그대가 소리친다면  
나는 메아리되어  
종일 지친 목소리 쉬게 하며  
다시 힘을 내어 소리치게 하리라

가을에 떠남은

오 춘 환

이 가을에는  
꼭 한 번 가을 산을 다녀오리라  
일상의 모습에서 풀려나  
마음을 활짝 열고  
등산모 쓰는 기쁨도  
오랫만에 누리 보리라.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노을진 들녘  
그래 오랫동안  
밀레의 “만종”을 회상해 보며  
우리들의 황혼을 그려보리라

단풍진 산봉우리  
계곡의 끝없는 물소리  
낙엽 밟는 소리  
산사의 목탁소리  
아! 자연과 더불어  
인생의 심오함을 느껴보리라



## 감 나무와 꽃꽂이

오 춘 환

몇년전에 가까운 이웃분들과 함께 내장산으로 단풍구경을 갔다 먼 여정 끝에 내장산엘 들어서니 단풍나무도 단풍나무려니와 내 눈엔 어찌 그리도 감나무만 눈에 띄는 것일까? 파아란 물이 후두둑 쏟아질 것만 같은 높고 맑은 가을하늘에 옳은 다 지고 빠알간 감만이 다닥다닥 달린 감나무와의 어울림이란 정녕 가을만이 가질 수 있는 진 풍경이었다.

“어머! 저 감나무 좀 봐. 애 저기 저 감나무 가지가 멋스럽게 휘어졌지? 저 가지 허리를 쳐서 백자 항아리에 꽃으면 얼마나 이 가을이 운치 있겠니?” 하니깐 “역시 직업의식이란……” 하고 후배는 곧 바로 웃는 얼굴로 말을 받는다.

꽃꽂이를 시작한지도 십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얼굴에 습털이 보송보송하던 시절 집과 직장에서의 단조로운 생활에서 무엇인가 열중하고픈 시간들이 있었다.

어느 날 토요일 오후 서울에서 근무하던 친구가 꽃을 한아름 안고 방문하였다.

국화꽃이었는데 이름이 귀부인이라고 하였다.

나는 자신하였다. 잘 꽃을 수 있다고. 그러나 그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

자꾸만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다가 꽃들의 키가 모두 몽당연필이 되어 버렸다.

나는 거의 울상이었다. 그날 이후 꽃꽂이를 꼭 배우리라 다짐했고 무엇이든지 쉬운 것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후 많은 세월을 꽃과 함께 보내니 어느 사이 전문가가 되어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동양 사람들은 예로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즐기며 살줄 알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꽃을 하나의 예로 승화시켜 다룬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꽃이란 우선 소재를 선택 할 경우 꽃꽂이는 목적 환경 계절감 사용

할 수 있는 화기를 생각하고 꽃는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정해지는 것이다.

가을이 되면 꽃꽂이 수업시간에 꼭 한 번은 감나무로 향아리에 꽃꽂이를 한  
다. 조그만 김치독 향아리라면 더욱 질박한 운치를 준다.

잘 꽃고 못꽃고를 떠나서 그것은 그냥 작품이었다. 더욱이 거기다가 귀부인  
이라는 국화 몇 송이를 걸들인다면 그것은 완성된 작품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이 가을을 더욱이 풍성하게 하여 주고 늦가을 정취를 더해 주어 사색  
에 잠기게 하여 주던가!

그로부터 우리 부부에게는 소박한 꿈이 하나 생겼다. 허름한 시골 별장을  
갖는 것이다. 집 둘째에는 온통 감나무를 심으리라. 봄이 되면 감나무가  
사방으로 감꽃을 피울 것이며 서리가 내리면 터질 듯 떨어질 듯 매달려 있는  
붉은 감에서 자연의 오묘함을 깨닫게 해주고 창문을 열거나 마당을 거닐 때면  
파아란 하늘에 무수히 박혀있는 빠알간 별을 바라보며 노천명의 이름없는  
여인처럼 마냥 행복해할 것이다. 그뿐이라. 감은 겨울동안의 간식으로도 으뜸  
이고 어린 아이나 노인분도 모두 좋아해서 보고 느끼는 즐거움에서 먹는 기쁨  
마저 주지 않는가. 아!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우리 부부는 우리들이 황혼을 보낼 감나무로 울타리를 엮은 집을 아직 마련치  
못했다.

그것이 언제가 될려는지는 모르지만 욕심은 내지 않겠다.

감이 열리는 계절이 되면 감이 많이 열리는 우리 안성인들의 고장 칠장사로  
문득 문득 달려가 가슴 가득히 가을 풍경화 한 장을 담아오곤 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용두리 산 28

— 이 길 속 —

제가 여름이 되기 전 남편과 사흘을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변명같지만, 우리집은 시골의 여느 집과는 다르게 일이 많은 편입니다.

이른 봄부터 여름과 가을, 초겨울까지도 손 발 견어붙이고 해내도 항상 일은 끝이 없습니다.

남들은 농장 한다니까 수입이나 많아서 저리 일해도 괜찮겠지 부러워들 하지만 실상은 노력에 비해 수입은 뒤쳐지고 또 수입이라는 것도 농장주, 밭에 도로 넣어주어야 하는 일상이기 때문에 몸만 고단하게 살아온 듯 싶습니다.

아이를 갖낭아선 대소쿠리에 담아 나무그늘에 두고 일했으며 아이가 걸어 다닐 때는 흙을 옷삼아 뒹굴어도 방해않고 노는 것이 신통하여 나무라지 못했고 조금 더 커 유치원 보내고 학교를 보냈어도 단 이틀 데려다 주는 것을 끝으로 일만 열중해 왔더니 여복하면 친정어머니께서 “애야 일이란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지만 아이들 크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단다. 아이 잘봐라” 이렇게 걱정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작은 애가 세살적에 개구리를 잡는다고 언뭇에 빠진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학생이 뛰어들어 건져주고서 발매던 나에게 알려주기에 허우적거리며 달려가 포대기에 아이를 비끄러매고 하루종일 눈물빠던 일 그렇게 일만 알고 지내온 13년입니다.

돌이켜보니 산다는 것이 늘상 제자리 걸음같아서 나이 더 먹기전에 다른 생활을 해보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생활이 조금 나아지니 일하는게 이제 피난다는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농사를 안 짓겠다는 돌발적인 사태에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물고 전 저대로 사흘을 밥도 안먹고 버티는 바람에 일어진 결과가 올 가을 일 끝내

고 가게 하나 얻어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13년간 복습했던 현장에 뛰어다니며 농장을 원래 위치로 활기 있게 가꾸었고 88년 농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요즘엔 김장 끝내고 메주쭈고 더러는 텔레비존도 보면서 청문회가 어떻고, 개각발표가 났다며 세상 돌아가는 추위에 관심을 갖다보니 저 자신도 사흘 싸우고 받아낸 약속을 잊어버렸던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 바벨 것 없는 지금 따뜻한 아랫목에 배갈고 누워 책이나 보고 눈이라도 평평 내리는 날은 문닫아 두고 요정처럼 굴뚝으로 드나들고픈 충동도 이는 이 안락한 생활에 그냥 잊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바깥날씨가 매섭다고 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서서 남편에게 “당신이 가을에는 목 좋은 가게 하나 차려준다고 하고서 왜 슬슬 넘겨요?” 하고 따져보았습니다. 남편은 험집게 웃으며 “그거 그만 두는 거지 뭐. 농담한건데 이제와 얘기지만 그땐 당신을 어떻게 못해보겠더라구. 집안 편하게 할려고 임시방편 한건데 그걸 믿고 있어?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을 해야지. 그래야 들어주지.” 멋지게 변명하는 남편을 바라보니 알미웁기 보다는 공감이 앞섰습니다.

여름 한철을 매일 남의 손으로 빌려야 하는 우리집 일인데 나의 부재로 인해 농사도 충실치 못하고 또 제가 가질 일이라는 것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깐요. 이 넓은 땅 십년넘게 정성들인 밭 잡초는 누가 뽑을 것이며 소록소록 예쁘게 자라는 작물은 어디에서 찾아보겠어요?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을 하라는 남편에게 장난이 솟구쳤습니다.

종이와 연필을 챙겨놓으며 “그럼 당신이 들어줘도 되는 게 무엇무엇인지 적어봐요. 오늘 확실히 해놔야 이후라도 청문회처럼 답변 않지.” 남편은 무어라 쓰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는 제게 주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각서라 쓰고 질서정연한 글씨로 “이길숙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3년이면 귀부인처럼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적힌 그 종이를 받아쥐고 전 푸하하하 웃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 김장하는 날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봉남동 333 번지

장 영 속

오늘은 김장을 하는 날입니다. 엄마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돌아잡니다. 김장을 하면 겨울걱정은 한시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고된 일을 하면서도 마냥 흐뭇한 표정입니다. 김장은 진주, 윤주, 옹희 삼남매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배추속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장때의 배추속은 짹짹하면서도 달싸한 맛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한사코 그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나 한번만……”

“나도 한번만……”

삼남매는 깨끗이 씻어담은 배추함지에 붙어서 자꾸만 배추속을 뜯어먹었습니다. “이제 그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요.” 엄마는 일을 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또 배를 앓을까 걱정이 되어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들은 늘어붙어서 배추속을 빼먹으며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너희들 그만 방에 들어가지 못하겠니?” 마침내 엄마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제야 아이들도 마지못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입맛은 계속 당겨서 배추속이 먹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옹희야. 엄마한테 가서 배추속좀 얻어가지고 와! 너는 막내니까 잘 주실거야!” 진주는 꼬마인 옹희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옹희는 입술을 비죽이 내밀고 머리를 흔들니다. “싫어. 나만 엄마한테 야단 맞게?”

“옹희 너 말 안들올래? 놀이터에 가서 방방하는 거 안껴줄래” 누나의 업포에 옹희는 시무룩했습니다. 작은 누나는 또 “옹희 너 동화책 안읽어 줄거야.” 그러나 옹희는 난처해서 얼른 대답을 못했습니다.

방방도 타고 싶고 동화이야기도 듣고 싶었지만 배추속을 달라고 하면 엄마는 틀림없이 야단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흥! 가기 싫으면 그만둬라. 윤주야. 우리 나가서 놀이터에 가자” 진주는 윤주에게 눈을 찡긋해 보이며 옹희의 눈치도 살폈습니다.

옹희는 난처한 표정입니다. 진주와 윤주는 밖에 나가느척 했습니다.

“배추속 얻어오면 놀이터에서 방방 태워주지?” 어지간히 함께 가고싶은 옹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옹희는 곧 엄마한테로 갔습니다.

“엄마 배추속좀 줘! 굴도 넣어 싸가지구” “아니 아까 그렇게 먹고도 또 달라니?” 그러면서도 엄마는 배추속을 하나 빼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오지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옹희는 배추속을 들고 싱글벙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애게. 요거?” 진주는 어이없다는듯이 배추속을 들고 보다가 훌쩍 한입에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윤주가 가만있을리 없습니다. “씨이, 언니는 혼자 다 먹어버리기야?” “하나 밖에 가져오지 않은 것을 그럼 어떡하니? 너도 옹희 시켜서 가져오라고 해.” 윤주는 언니 말대로 옹희에게 일렀습니다. “옹희야 가서 배추속 달래가지고 와. 그래야 재미있는 동화책도 읽어준다.” 옹희는 아주 난처했습니다. 엄마가 다시는 오지말라고 단단히 일렀는데 어떻게 또 잡니까? 그렇다고 놀이터에도 못가고 혼자 있기는 싫었습니다. 옹희는 생각다 못해 한 번 더 가보기로 했습니다. “옹희야 이번엔 한입만 얻어오지 말고 좀 듬뿍 얻어와. 알았지?” 진주는 방금 가져온 것을 혼자먹고도 아직 욕심이 있는 모양입니다. 옹희는 엄마한테 또 갔습니다.

“아니 왜 자꾸 그러니? 매를 좀 맞아야 알겠니?” 엄마는 이미 화를 냈습니다. “누나가 얻어오래.” 옹희는 어쩔 수 없이 누나들의 심부름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못된 애들 같으니라구. 밤낮 어린 것만 시켜먹는구나. 들어가서 엄마가 야단친다고 방 마루 깨끗히 치우고 설겅이도 하란다고 해라!” 옹희는 빈손으로 돌아와서 두 누나에게 엄마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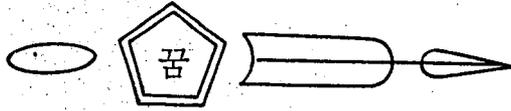
“뭉뭉, 방도 치우고 설겅이까지 하라구? 아이구 배야. 나는 배가 아파서 못하겠으니 윤주야. 네가 좀 해라.” 진주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구르며 일을 윤주에게 시켰습니다. “아유, 나도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견디겠어!” 무엇이든 먹을 것이라면 훌쩍 해치우는 애들이지만 설겅이를 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기 싫어합니다.

“아이구 배야!” “나도 배야!” “내 배가 네 배보다 더 아프다!” “천만의 말씀, 더 아픈 건 내 배야. 아이구 배야!” 진주와 윤주

는 똑같이 배를 움켜쥐고 끄끙거리며 방안에서 뒹굴었습니다.  
옹회는 겁이 나서 얼른 엄만테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큰일났어. 누나  
들이 배가 아프다고 야단이야!” “그것 봐라. 그러니까 배추속을  
작작 먹으라고 했잖아.” 엄마는 젖은 손을 닦으며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곧 찌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당장 벽에 걸린 회초리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이 회초리는 찌병에 제일 좋은 약이란다.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빨리 낫는단다.  
요것들이 더 맞아!” “배 안아파요. 다 나왔어요.” 진주와 윤주  
는 두 손을 싹싹 빌며 방침소와 설걸이를 말끔히 해 치웠습니다.

끝





밤마다  
뜬눈으로 그대를  
기다리는 것은  
나의 작은 사랑인가?

별 하나  
꿈에 꼬옥 안기 위해  
밤새 절망을 애무하면서  
솜사탕같은 구름속을  
방황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대 모습  
찾아 헤메며  
스스로 꿈에 젖은 채  
눈을 떠본다.

맑게 개인 이른 아침  
새벽 이슬 한 모금으로  
타는 목을 축이고  
광렬히 떠오르는  
햇살을 맞으며  
포근한 체온도 없이  
나의 작은 사랑은  
그렇게 익어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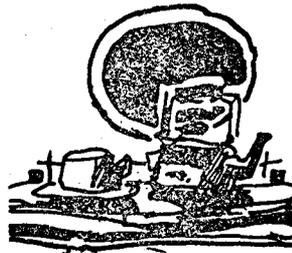
## 커피 한 잔

최효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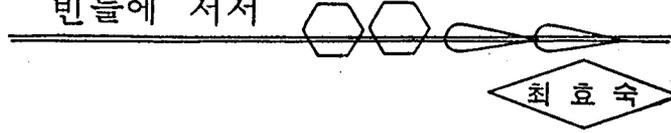
들판의 온갖 생물들이  
누렇게 물들이고  
가지말아야 할 선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선다.

창밖에 우수수  
쏟아지던 낙엽도 이제  
마지막 잎새마저 떨어지고 나니  
웬지 계절의 따스함 보다  
서글픔이 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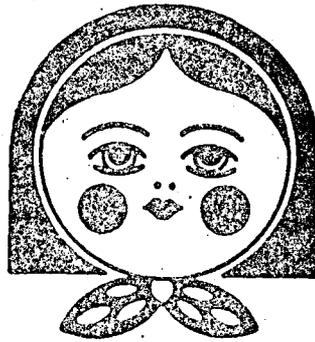
겨울  
이 추위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서로의 마음과 가슴으로  
 옮겨지고 있는 계절  
한낮의 차가운  
햇살을 받으며  
따끈한 커피 한 잔에  
서러히  
길을 떠나는  
낙엽을 배웅해 주자



빈들에 서서



새벽이면  
농부가 삼들고 물고 보러 왔다가고  
개구리 장단 맞춰  
흥겨웁게 노래 부르더니  
농부 밭길 끊어지고  
개구리 울음소리  
그치고 나니  
빈 들은 소리없고  
바람만 훑 하니  
논두렁 억새풀 왕왕 울리고  
네 맘이 서글프다 해도  
네 맘이 허전하다 해도  
내 어찌 네 맘 모르랴만은  
네 답이 수재의 고통을  
손질하고 한숨지며 돌아서는  
농부 마음만 하라



## 농촌은 마음의 고향

박 청 자

“농촌”하면 우리네 머리에선 부지런하고 절약하며 소득이 적지만 긍지를 갖고 힘드는 일에 구슬땀을 흘리시는 농부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가난하지만 부끄러워 하지도 시기하지도 않는 인정많은 순박한 모습때문에 우리네 도시인의 마음에서도 잊어진 것 같지만 늘 간직되어있는 따뜻한 곳. 일손 한 번 도와줄 처지에 있지 않아도 안스러움과 고마운 정이 끌리는 마음의 고향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루과이 라운드니, 농산물 수입이니, 수매가격 한자리 인상이니 ……………, 농촌의 정책이나 소식에 촉각을 세우고 걱정을 하며 분개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장마에도 가뭄에도 농촌을 생각하게 되는 심성을 갖은 농업을 천하지 대본으로 여겨온 조상을 둔 농민인 후예이다.

채산성이 없어서 교육환경이 빈약해서 농촌을 떠나는 농민의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아파했었는데, 한 농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촌의 또 다른 상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그 분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에서 농사일만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농부이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땅 투기가 일고 무엇이 들어선다 술렁대니 쓸모 없던 산을 포함해 농토가 값이 뛰어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 무엇하러 일을 합니까? 한 귀퉁이만 팔아도 평생 편히 살텐데, 그래서 과수원도 묵히고 논농사만 지으셨단다. 채산성이 없어서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저런 핑계로 농사를 앞지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업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하지 않으며 명예를 생명처럼 지켜야만 대학교수가, 의사가, 너도 나도, 땅 투기의 대못을 조국강산에 박아댈 때 우리의 의식은 병이 들고 가치관은 혼돈을 일으켰다. 땅을 버린 농부가 할 일없이 읍에 나와 화투를 하고 시간을 보내며 만취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원한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비애같은 걸 느꼈다.

## 출산과 어머니

김 순 희

다시는 아기를 갖을 수 없는 여자가 된다는 것과 마취에서 과연 깨어날 수 있을까? 못깨어나면? 하는 불안감이 수술대 위에까지 따라 붙었다. 알코올인가를 수술부위를 소독하자 한기가 엄습해왔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서 드디어 「준비 됐습니다.」하는 소리를 듣고부터 서서히 감각을 잃기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도 배를 가르는 듯한 느낌, 피가 울켜 쏟아지는 느낌, 아가의 첫 울음소리, 탯줄을 내리 누르는 듯한 느낌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후로는 까맣게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주위의 웅성거리는 듯한 소란함과 정신을 차려보니 병실에 누워있는 나와 그옆에 딸내미

“살았구나” 비로소 안도의 한숨. 수술전 T.V에서 의료사고다 뭐다해서 끔찍한 뉴스끝에 받은 수술이라서 겁이 왜간이 났어야 말이지. 살아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끊임없는 통증이 엄습해왔다. 아가 얼굴을 보니 큰애 갖당을 때랑 너무 흡사하다. 나도 두 애의 엄마가 된거다. 딸과 아들의 엄마.

이튿 날 뜻밖에 큰 오빠가 다녀갔다. 경찰공무원으로 명절에도 항상 비상이라서 1년에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든 오빠가 웬일이냐고 호들갑을 떨었더니만 오빠는 그저 너 딸난 것 축하해 주러왔지 하며 얼버무리는 것이었다.

헌데 알고보니 그게 아니었다. 내가 수술하러 입원하던 날 친정 엄마는 “쓸거 하나있으면 됐지. 뭐하러 배갈라가며 아이를 위협하게 또 낳냐?” 하시며 겁이 나 우시다가 울면은 딸한테 안종을 것 같아서 정신차리고 옥상에 빨래걸으러 가셨다가 정신을 잃고 층계에서 밑으로 쓰러지셨더라.

이제 연세 68세. 고혈압으로 몇해전 두어 번 코피 쏟으시고 그래

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셨으면 하는 자식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세월은 너무나 연약하게 변케한 것이다. 사당에서 흠어졌던 아들며느리가 보이고 머리 한 응큼 뽑아지고 왼쪽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눈까지 빨갛게 충혈되었다는 엄마.

병실에서 링게루 주사를 맞으며 갓난 딸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면서 부모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것만 같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만큼 자식이 부모마음을 조금치라도 헤아린다면 효자 아닌 사람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나홀이 지나서야 엄마가 힘들게 거동을 하셨다. “어휴 우리 외손녀 착하기도 해라. 할미가 손녀 만나러 왔지. 어디 보자” 하시며 엄마는 아가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그래도 그애가 복이 있어서 엄마가 빨리 깨어나셨다구 자위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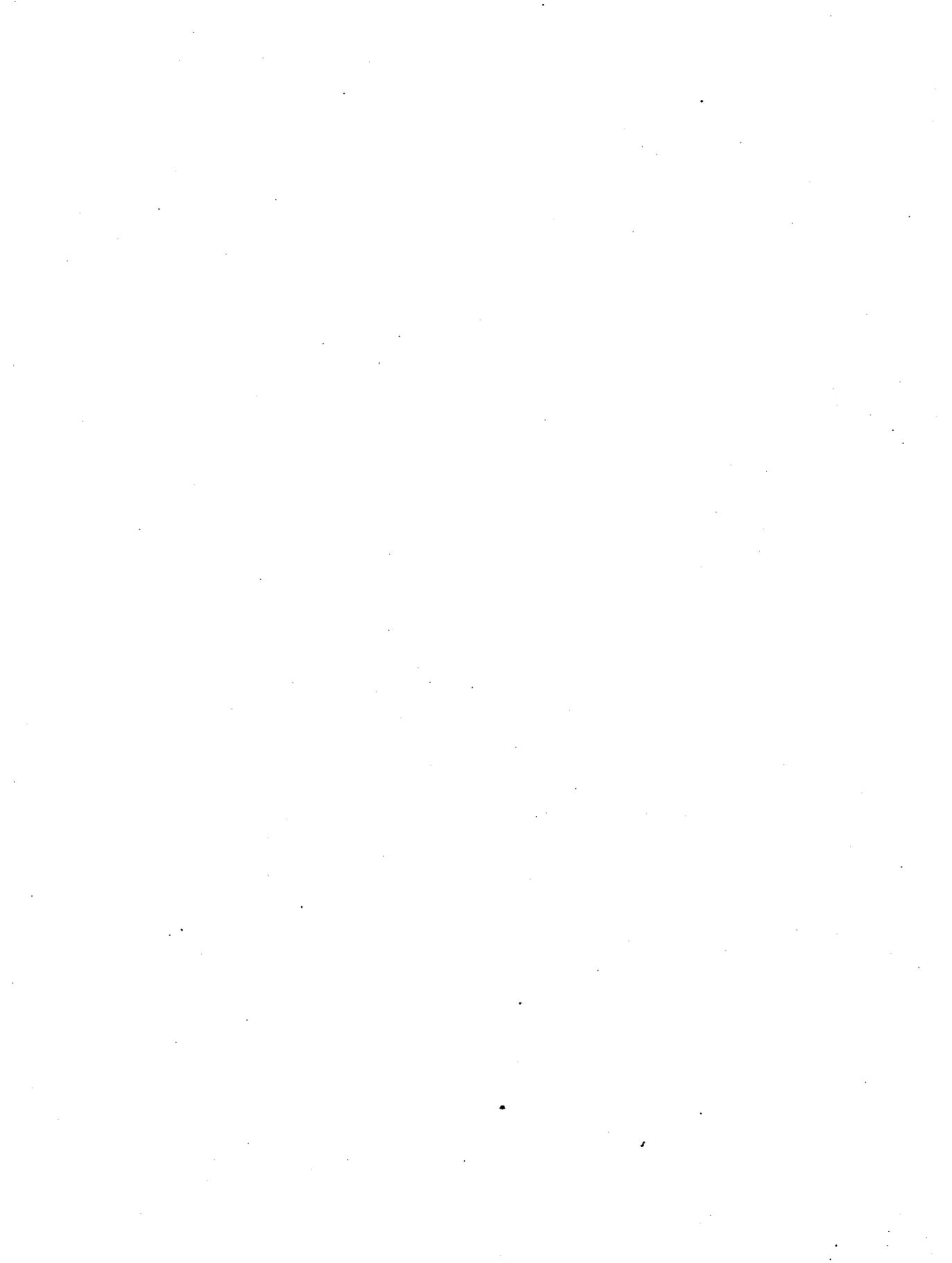
눈물이 글썽거리 무어라 할 말을 잊은 채 가만이 있으려니까 엄마는 어깨며 발을 주물러 주시며 이불 꼭 덮고 몸 한데 굴리지 말라시며 신신당부하신다.

퇴원하여 호박에 꿀넣어 푹 달인 물을 먹으며 땀을 흘리며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

“엄마. 엄마도 잡수셔요. 얼굴 부기 좀 빠지게” “애는 별소리 다한다. 약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란다. 나야 다른 호박있으니 찌먹어도 되지.” 딸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 등시럽다고 이불로 가리막이 해주시는 우리 엄마. 일회용 기저귀를 아기 짓무른다고 굳이 재래용 기저귀를 쓰시느라 빨래 해대느라 힘드시는 엄마. 난 우리 딸애의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한 달후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올것이다. 함박눈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 온 누리에 그리고 우리 집 모두에게도 특히 우리 엄마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그득하시길 기원해본다. 새해에는 모쪼록 아름답고 즐겁고 신나는 날만 계속되기를……, 큰 아들 정질이랑 큰 딸 정아도 건강하기를 ……………,





## 안성주부문학인회

- 문 해 규 :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서인리 602(중앙공예)  
☎( 7 2 - 0 3 1 5 )
- 박 회 순 :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서인리 321(대도화점)  
☎( 2 - 6 6 9 3 )
- 모 춘 자 :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동본리 453(제일감리교회)  
☎( 7 3 - 3 6 0 1 )
- 김 속 경 :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대천리 70  
☎( 2 - 9 3 0 8 )
- 김 용 설 :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사무소 ☎( 2 - 3 0 0 3 )
- 구 혜 순 :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사무소 ☎( 7 4 - 2 6 0 3 )
- 
- 김 순 회 :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동본리 58(펜시베이비)  
☎( 7 3 - 1 5 7 7 )
- 강 미 화 :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석정리(대구화점)  
☎( 7 2 - 1 4 0 4 )
- 성 백 길 :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주천리 하동 322(채자연 목공예사)  
☎( 7 2 - 5 2 2 2 )
- 아 길 속 :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용두리 산 28  
☎( 0333-53-1771 )
- 오 춘 환 :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낙원리 코스모스 A P T 102-505호  
☎( 2 - 8 2 9 8 )
- 박 청 자 :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인지리(노송가구) 대리점  
☎( 7 2 - 1 0 9 0 ) (에이스침대)
- 김 정 란 :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대천리(나눔터)  
☎( 7 3 - 4 8 0 7 )
- 최 효 속 :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노곡리 벼터 718  
☎( 7 4 - 0 5 5 0 )
- 김 혜 선 :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신능리(중앙목장)  
☎( 7 3 - 4 8 3 5 )
- 김 순 자 :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낙원리(제일문예사)  
☎( 2 - 3 7 9 1 )
- 장 영 속 :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봉남동 333  
☎( 7 3 - 1 3 4 5 )
- 김 정 속 :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죽리(당촌)

